

## 일광유년(日光流年)』에 나타난 운명론과 윤리적 역설

김봉연\*

### — 목 차 —

1. 들어가는 글
2. 운명의 불가항력과 저항의 역설
3. 생존 본능과 윤리적 붕괴
4. 운명애(Amor Fati)와 비극의 긍정
5. 나오는 글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엔렌커(閻連科)의 장편소설 『일광유년(日光流年)』(2004)을 니체의 사유를 경유하여 초보적으로 읽어본다. 기존 연구가 이 작품을 신실주의(神實主義)의 문법 안에서 중국 농촌의 폭력과 수난을 재현한 텍스트로 해석해 온 것과 달리, 본 글은 단명(短命)이라는 운명적 조건이 개별 역사의 알레고리를 넘어 유한한 인간 존재가 보편적으로 직면하는 실존의 문제임을 밝히고자 한다.

작품이 채택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순행의 서사 구조는 영원회귀의 문학적 형상화로 읽을 수 있다. 결말이 미리 확정된 채 과거로 소급되는 이 서사는 모든 저항이 이미 실패로 예정되어 있다는 운명의 압도적 무게를 체감케 하는 동시에, 반복이 기계적 동일성이 아닌 차이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실존론적 의미를 획득한다. 아울러 반복되는 실패에도 저항을 멈추지 않는 산성촌 사람들의 태도는 운명애의 실천이다. 이는 단순한 숙명론적 체념이 아니라 고통과 모순을 포함한 삶 전체를 긍정하는 적극적인 의지의 발현이다.

**키워드:** 엔렌커, 일광유년, 신실주의, 영원회귀, 윤리적 역설, 운명애.

\* 숭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연구중점 부교수

## 1. 들어가는 글

엔렌커(閻連科)의 문학을 갈음하는 단어로 자주 언급되는 ‘신실주의(神實主義)’는 현실을 소묘하는 장치이자 작가 자신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현실에 존재하는 사실은 그 너머에 존재하는 진실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신념 아래 동원되는 꿈과 환상, 과장과 은유의 기법들은 대체로 이성과 합리를 갖춘 인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비이성과 비합리를 그린다. 이로써 인간은 사실 감정과 충동에 의해 움직이고 권력과 이해득실에 따라 관계가 조절되는 존재임을 피력한다.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인간은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쉽게 금도를 넘어선다. ‘인간이 어찌 그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엔렌커에게 ‘인간이기에 그럴 수 있다’라는 명제로 바뀌고 이 속에서 ‘무엇을 인간으로 만드는가’에 대한 성찰을 길어 올린다. 여기에 그가 줄곧 천착해 온 중국의 현대사가 포개지면서 ‘신실주의’로 명명되는 엔렌커의 문학은 굴곡진 중국 역사가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만들었던 주된 이유임을 설명한다. 『레닌의 키스(受活)』(2004), 『딩씨 마을의 꿈(丁庄夢)』(2006), 『작렬지(炸裂志)』(2013)로 이어지는 일련의 작품들은 중국의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 개혁개방을 관통하며 벌어지는 폭력의 역사를 그린다. 특히 농촌과 농민에게 가해진 폭력의 범위와 강도에 집중해 그 여파를 추적한다. “부농과 빈농, 착취와 피착취, 저항과 저항의 대상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썼”<sup>1)</sup>던 습작 시기의 주제는 중국의 현대사라는 토대와 신실주의라는 신념이 접목된 가공할 메시지를 던진다. 『일광유년(日光流年)』(2004)<sup>2)</sup>은 이러한 문학적 행보에 동참하지만 역사를 더욱 소급하고, 신실주의의 면목을 견어내려는 모양새

1) 박민수, 「환상을 통해 드러나는 폭력과 위반-엔렌커의 『일광유년(日光流年)』 연구」, 『중국인문과학』 제87집, 2024, 228쪽.

2) 閻連科, 『日光流年』, 沈陽: 春風文藝出版社, 2004. 이 작품의 한국어 번역본으로, 김태성 옮김, 『일광유년』(서울: 자음과모음, 2021)이 있다. 본 논문에서 작품 인용 시, 해당 번역본을 따르며 작품명과 쪽수를 표기하도록 한다.

를 취한다. 이 작품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인간의 면면을 부각한다는 면에서 이전 작품들과 동계를 그리지만, 이를 환상과 은유, 알레고리를 통해 엄혹하고 추악한 현실을 고발하는 신실주의의 기법으로 모두 치환<sup>3)</sup>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의 근원을 소급하면서 명징하게 인간의 운명을 드러내 보이기 때문이다. 곧 이 작품은 문학적 수사와 기교를 통한 현실의 고발이라기보다 인간 실존의 문제에 더욱 천착한다.

소설의 공간은 엔렌커 문학의 상수라고도 할 수 있는 바러우(耙耮) 산맥. 이곳에 자리잡은 란(蘭)씨, 두(杜)씨, 쓰마(司馬)씨가 모여 사는 집성촌 사람들은 세대를 이어 반복되는 ‘목구멍 병’으로 인해 모두 마흔 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 사람들은 여태껏 마흔 살을 넘겨 산 사람을 본 적이 없고 자신 또한 마흔 살을 넘기지 못할 것을 알고 있다. 단명(短命)이라는 운명은 공포로 이어지고 한 해라도 더 살고 싶은 이들은 운명에 맞서 수로 공사, 제의(祭儀), 심지어 인육 매매와 같은 극단적 수단을 동원하지만, 모든 시도는 실패로 귀결된다.

그렇지만 이야기는 단순히 비극적 운명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운명에 저항하려는 인간의 선택이 어떻게 윤리적 파멸을 초래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단명이라는 운명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가 오래 전부터 반복적으로 행해져 왔다는 사실은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윤리 도덕에

3) 중국 내 『일광유년』에 관한 논의는 엔렌커 문학이 집중해왔던 농촌 현실의 고난과 죽음에 집중되어 있다. 신실주의의 문법은 이와 같은 내용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담당했고 이 작품 역시 이의 연장선상에서 해석 가능한 보편적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룬다. 대표적으로 謝有順, 「极致叙事的當下意義——重讀『日光流年』所想到的」, 『南方文壇』, 2007年 5月, 喬雨菲, 「崇拜與獻祭——『日光流年』中的苦難主題」, 『名作欣賞』, 2013年(09), 陽揚, 「苦難輪回下的真實——閻連科『日光流年』, 『受活』解讀」, 『北方文學』, 2020(15)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 시간을 역순으로 구성하고 있는 작품의 특징을 분석하는 연구(王一川, 「生死游戲儀式的復原——『日光流年』的索源體特徵」, 『當代作家評論』, 2001年 第6期, 羅冬依, 「論『日光流年』的敘事順序」, 『北方文學』, 2020(5) 등)가 있다.

위배되는 행위들 역시 반복적으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생존을 향한 절박한 욕망이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리는 과정은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는 한편 운명과 윤리의 경계에 선 인간을 조명한다. 이 지점에서 작품이 다루는 내용은 특정한 시공간을 배경으로 한 사회의 단면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문제로 소급된다. 이 소설이 다루는 불가항력의 운명 앞에서 인간의 의지는 어떤 방식으로 발휘되고 생존 본능이 윤리와 도덕을 압도할 때 인간성은 어떻게 변질되며,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삶을 지속하는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질문들은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들이 수시로 부딪치게 되는 보편적 상황으로 환원된다.

흥미로운 점은 소설이 운명을 극복하려는 이들의 시도를 시간상 역순으로 배열했다는 것이다. 현 시점의 촌장인 쓰마란(司馬蘭)을 기점으로 3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펼쳐놓는 역대 촌장들의 행태는 거대한 운명 앞에 무기력한 인간의 미약함을 돌출시킨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거듭되는 실패 앞에서도 끊임없이 단명을 넘어서려는 인물들의 처절한 고투는 주어진 삶에 순응하지 않고 생의 의지를 투영하는 적극적인 자세로도 읽힐 수 있다. 인간성의 왜곡을 거치고 실패가 분명함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계획을 모색하며 삶을 지속하는 이들의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는 행위는 현실 너머의 보이지 않는 진실을 포착하려는 엔렌커의 신실주의의 테두리를 넘어 실존적, 철학적 함의를 담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니체의 사유 안에서 초보적으로 읽어보고자 한다. 작품이 구현하는 역순행의 서사는 영원회귀의 문학적 형상화로서 산성촌의 운명과 저항이 지속될 것임을 암시한다.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생존본능이 윤리를 압도하는 과정은 니체의 힘에의 의지가 왜곡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이 만들어내는 생존 본능의 역설은 선악의 구도를 넘어선 생명 자체의 긍정으로 읽힌다. 또한 마흔 살을 넘어 살 수 없는 운명에 지속적으로 저항하는 행위는 단명이라는 비극에 대한 '절망적 희망'의 여지를 남긴다. 이는 운명애(Amor Fati)의 관점에서 비극의 긍정 가능성의 여지를 남긴다. 이러

한 시도는 『일광유년』에 덧입혀진 신실주의의 외피를 벗겨내는 작업이자,<sup>4)</sup> 운명과 본능, 윤리가 뒤엎힌 인간 실존의 복합성을 조명하는 한편 이로 인해 존재론적 딜레마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간 조건을 재확인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운명의 불가항력과 저항의 역설

바러우 산맥에 자리잡은 산성촌(三姓村) 사람들에게 단명은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 운명이다. 마을 구성원 전체가 마흔 살을 넘기지 못하는 이 조건은 생물학적인 한계를 넘어 존재론적인 숙명으로 여겨진다. 탄생은 죽음의 시작이고, 시한부와 다르지 않은 삶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죽음이 언제 도달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마을 사람들은 자신이 마흔 살을 넘겨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

씩이 틀 무렵은 바로 죽음이 한창 왕성한 시기였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마을에 사는 란(藍)씨, 두(杜)씨, 쓰마(司馬)씨 성을 가진 사람들은 가족과 마찬가지로 목구멍이 아프기 시작했고 곧이어 죽어가기 시작했다. 죽으면 곧장 매장을 했고 일단 매장을 하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마을에는 수십 년 전 촌장 두과이즈(杜拐子)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마흔

4) 이 작품에 대한 기존 국내 연구로 박민수와 유영의 글(『엔렌커(閻連科)의 신실주의와 장편소설 연구: 『일광유년(日光流年)』·『레닌의 키스(受活)』·『작렬지(炸裂誌)』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4)이 있다. 두 연구 모두 이 작품을 신실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현실의 폭력을 환상과 은유로 표출해냈다고 분석하면서, 중국 사회의 권력구조 비판이나 농촌 현실의 알레고리로 해석한다. 장쉬귀의 글(『문학·이데올로기·정치-엔렌커(閻連科) 작품 및 그에 대한 비평 엮보기』, 『공존의 인간학』 제7집, 2022)은 이데올로기 비평의 관점에서 작품을 분석했다. 이러한 접근은 작품의 사회정치적 맥락을 조명하는 데 기여했으나, 작품이 담고 있는 인간 실존의 차원을 충분히 조명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에 본 글은 기존 논의들 위에서 『일광유년』을 니체의 영원회귀와 운명론에 기대 재해석해보고자 한다.

살 넘게 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sup>5)</sup>

마흔 살 넘어 산 사람을 본 적이 없는 이들은 자신도 그 나이를 넘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마흔 살이 가까워질 무렵 목구멍이 아픈 것을 신호탄 삼아 죽음이 닥칠 것을 아는 이들은 곧 자신의 뒷자리를 가늠해보며 조금이라도 더 넓은 땅을 가지려 한다. 동일한 운명이 이끄는 삶의 모습은 한 해라도 더 살기 위해 벌어지는 본능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정점을 향하고, 그 속에 매개된 권력과 욕망은 이해득실에 따라 조정되는 이진투구의 양상을 보인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욕망이 이 소설의 집필 동기였음을 밝혔던<sup>6)</sup> 작가에 기댄다면, 작품 속 단명은 보편적 인간의 실존 조건인 필멸성의 극단화된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인간 조건으로서 죽음은 동일하지만, 그것의 구체적 시간을 알고 있는 이들의 삶의 모습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사뭇 다르게 전개된다.

두바이는 우선 긴 못을 하나 골라 침으로 적시면서 죽은 사람을 입관하기 전에 염을 하는 것처럼 중얼거렸다.

“아버지, 조심하세요. 관을 덮을게요. 못을 잘 피하세요. 이제 왼쪽에 못을 박을 테니까 오른쪽으로 피하세요.”

탕탕 소리와 함께 못질이 시작되었다. 두바이는 한 번 또 한 번 장도리를 내리쳤다.

(중략)

두바이가 말했다.

“별 일 없겠지요?”

두옌이 말했다.

“시험 잘 보도록 해라. 국가 간부가 되면 마을을 관리할 수 있을 테니까.”

두바이가 말했다.

“다른 일 없으시면 저는 갈게요. 며칠 동안 바쁜 일 좀 처리하고 돌아와

5) 『일광유년』, 17-18쪽.

6) 「장편 ‘일광유년’엔렌커 “모든 작품, 작가의 내면과 영혼을 위한 쓴 걸 깨달았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914515575> (최종검색일: 2026년 4월 7일)

장례를 치러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집 문을 닫고 나왔다.<sup>7)</sup>

마을에서 지식인으로 통하는 두옌(杜嚴)은 목구멍이 아프기 시작하자 자신이 얼마 살지 못할 것을 직감한다. 이 시기 마을에서는 장수 마을에 흐르고 있는 강물을 끌어오려는 대규모 수로 공사를 하고 있어서 마을에 돈 되는 모든 것을 팔아 공사비용을 충당하려 했고, 죽은 사람이 누을 관 역시 그 품목 중 하나였다. 관을 빼앗길 수 없는 그는 관리시험을 보러 가는 아들에게 며칠 내 자신은 죽을 것이라며 ‘미리’ 관 속에 들어가 있겠다고 말한다. 그런 아버지를 말리지 않고 관 뚜껑을 덮어 못을 박은 다음 시험을 치른 후 천천히 장례를 치르겠다고 말하는 아들에게서 당황함이나 비참함은 찾아볼 수 없다. 가족을 잃게 된다는 슬픔과 암담함 또한 없다. 그가 감당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죽음에 따른 감정의 동요가 아니라 눈 앞에 닥친 시험이다. 당사자 역시 삶에 대한 회한이나 죽음의 공포 대신 아들이 관리가 되어 마을의 권력을 쥐기 원한다. 삶의 한 자락으로 자리잡은 죽음은 늘 일어나서 특별할 것 없는, 일상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일’이 된다.

작품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순행적 구성<sup>8)</sup>을 취하여 단명을 거스를 수 없는 운명으로서 돌출시킨다. 마지막 촌장인 쓰마란(司馬藍)의 이야기에서 시작해 두옌, 란바이수이(藍百歲), 쓰마샤오샤오(司馬笑笑)에 이르는, 역순으로 올라가는 방식은 이들에게 벌어지는 비극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세대를 관통하는 필연적 운명임을 나타낸다. 확정된 현실로 운명을 강조하면서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역순으로 추적하는 서사 구성은 결말을 먼저 경험하게

7) 『일광유년』, 370-371쪽.

8) 시간을 역순으로 서술하는 이와 같은 구성에 대해 왕이관(王一川)은 ‘색원체(索源體) 소설이라 명명한다(「生死游戲儀式的復原-『日光流年』의索源體特徵」, 『當代作家評論』, 第6期, 2001, 10쪽). ‘근원을 찾아간다’는 의미에 기댄다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과거 경험의 누적이고, 그때 해결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피력한다. 반복되고 순환되는 상황들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가닿을 수 없는 운명의 영역임을 예들려 드러낸다.

함으로써, 이후의 모든 저항 시도가 이미 실패로 예정되어 있다는 운명의 압도적 무게를 체감케 한다. 역순행적 서사는 운명론적 세계관의 형식적 구현으로서,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구조를 드러내는 장치로 볼 수 있다. 곧 이미 일어난 일을 보여줌으로써, 현재가 과거에 의해 결정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지금의 실패를 통해 그 이전 세대의 시도를 읽는다는 것은 ‘이 또한 실패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산성촌 사람들의 역사는 운명 앞에 저항해온 이력을 드러내는 한편 그러한 노력들이 예외없이 실패로 돌아가는 무력하고 불가항력적인 인간 한계의 누적된 경험치를 드러낸다.

운명에 저항하려는 4대에 걸친 촌장들의 노력은 그 내용만 다를 뿐 동일한 패턴 속에서 지속된다. 새로운 촌장이 선출되어 마을을 구원하겠다고 구체적 행동에 나서고, 이 과정에서 수명을 연장하겠다는 목적을 위해 비윤리적인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시도는 외부적 재난 또는 내부적 모순으로 인해 좌절된다. 단명이라는 운명은 이들의 모든 노력을 필연적 실패로 귀결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대두된다. 그러나 작품은 거듭된 실패를 그려내는 동시에 그 무력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저항에 방점을 찍는다. 산성촌 사람들은 운명을 바꿀 수 없지만, 그에 순응하지도 않는다. 실패를 알면서도 지속하는 행위 자체가 인간을 정의한다는 역설적 상황과 변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체념하지 않는 긴장은 이 작품을 견인하는 힘이다. 모든 노력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산성촌 사람들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멈추지 않는다. 이는 니체가 말한 모든 것이 끝없이 반복되는 삶의 구조로서 영원회귀의 의미에 가닿아 있다.

어느 날 낮, 혹은 어느 날 밤에 악령이 너의 가장 깊은 고독 속으로 살며시 찾아들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네가 지금 살고 있고, 살아왔던 이 삶을 너는 다시 한번 살아야만 하고, 또 무수히 반복해서 살아야만 할 것이다; 거기에 새로운 것이란 없으며, 모든 고통, 모든 쾌락, 모든 사상과 탄식, 네 삶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네게 다시 찾아올 것이다. 모든 것이 같은 차례와 순서로. 9)

니체의 영원회귀는 모든 사건은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순환적 시간관을 내포하는 동시에 실존적 차원에서 개인의 삶이 영원히 반복될 때 그 삶을 긍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 두 가지 층위에서 작동한다.<sup>10)</sup>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의 흐름은 ‘이미 일어난 일’을 반복해서 경험케 하고 그 결말 또한 미리 제시하는 모양새를 취한다. 때문에 쓰마란이 감행하는 수로 공사는 실패할 것이고 마을 사람들은 마흔 살이 되기 전 죽을 것이며, 한 해라도 더 살고자 하는 희망은 좌절될 것이다. 곧 운명으로 치환된 영원회귀 속에서 산성촌 사람들의 반복된 저항은 실패의 반복으로 귀결되며, 단명이라는 비극 또한 계속될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역순행 서사가 형상화하는 영원회귀의 구조는 반복의 패턴을 드러내는데만 머물지 않고, 그 안에 갇힌 이들에게 가해지는 내적 압박을 돌출시킨다. 만약 실패가 일회성에 그친다면, 인간의 의지는 그 실패를 ‘지나간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시도를 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와 열망이 개입되지 못하고 예정된 실패, 곧 실패가 영원회귀 속에 머물게 된다면 상황은 다른 국면으로 치닫게 된다. 생존을 위한 의지와 노력은 더욱 극단적인 수단을 찾게 되고, 모두의 염원이라 선전했던 생명 연장을 향한 기획은 타자에 대한 대상화와 상품화를 위시한 폭력으로 변질된다.

9) 프리드리히 니체 지음, 안성찬, 홍사현 옮김, 『즐거운 학문·메시나에서의 전원시』, 책세상, 2005, 314-315쪽.

10) 니체의 영원회귀에 대해서는 우주의 모든 사건이 특정한 주기로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우주론적 이해와 순환하고 반복되는 시간이지만 그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이라 이해하는 실존론적 이해가 존재한다. 전자는 시간 속에서 동일한 것이 절대적으로 반복되는 순환으로 이해하며 후자는 반복을 절대적 긍정이라는 실존적 감정을 불러일으켜 매 순간의 선택에 대한 긍정을 요구한다. 두 가지 이해 모두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데, 우주론적 이해는 동일한 것의 절대적 반복이라는 측면에서 숙명론적 체념을 불러올 수 있다. 실존론적 이해는 하나의 사건이나 선택이 운명 전체를 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 실수나 오류로 판명되었을 때 오는 후과의 무게로 인해 부정적 원리가 될 수 있다. 진은영, 『니체, 영원회귀와 차이의 철학』, 그린비, 2007, 135-138쪽.

### 3. 생존 본능과 윤리적 붕괴

니체는 영원회귀를 “가장 무거운 짐”이라 명명했다.<sup>11)</sup> 그 짐의 무게는 산싱촌 사람들이 감행하는 일들의 강도를 결정한다. 그들의 행위는 반복의 고통이라는 의미를 넘어 반복이 존재의 의미를 재구성한다는 뜻에서 삶을 위협한다. 실존 조건으로 제시되는 영원회귀의 삶 속에서 세대를 거듭할수록 삶의 무게는 가중된다.

작품 속 인물들은 이 무게를 온몸으로 짊어진다. 단명의 극복이라는 목적은 신체의 매매라는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 선택의 무게는 일회성의 지분만을 점하지 않고, 단순한 윤리적 죄책감에 그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역순환의 구조 속에서 이 선택은 영원히 반복될 것이고, 쓰마란으로 대표되는 촌장들 역시 끝없이 같은 강요를 반복하고 같은 실패를 맛보며 같은 절망에 빠질 것을 암시한다. 마찬가지로 쓰마란의 고통은 이전 세대가 겪었던 것이기 때문에 쓰마란 이후 세대, 곧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도 같은 고통을 감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한다. 산싱촌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이 반복의 굴레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없다. 때문에 단명은 공동체 전체의 소멸 위기로 다가온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생존은 유일한 목표가 되고 윤리와 도덕은 지켜야 할 절대적 가치가 아닌, 생존을 위해서 저버릴 수 있는 ‘하찮은 것’이 된다.

수로를 건설하기 위해 쓰마란이 벌인 일들은 생명 연장을 위한 교육지책처럼 보인다. 그는 이전 촌장의 미완된 수로 사업을 이어받으려 한다. 링인허(靈隱河) 근처 마을에 100세 노인이 많다는 사실에 근거해 그 강물을 끌어오면 단명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은 것이다. 문제는 수로 건설에 들어가는 돈을 확보하는 쓰마란의 방식이다.

11) 각주 9)에 인용된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되었다. 해당 구절은 다음과 같다. “모든 것 하나하에 대해 ‘너는 이것을 다시 한 번, 그리고 무수히 많은 번 원하는가? 라는 물음이 네 행위 위에 가장 무거운 짐으로 놓일 것이다.”(강조-필자)

서른 번째 집에 이르러 말했다. “기회가 생기는 대로 교화원에 가서 피부를 좀 팔도록 하시오.” 서른네 번째 집에 이르러 말했다. “아줌마는 보름 뒤에 지우두에 가서 열흘 동안 몸을 팔도록 하시오.”<sup>12)</sup>

쓰마란은 강물을 끌어와 사용하면 마흔 살을 넘겨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심지만, 가난한 농촌에서 공사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다. 그리하여 남자들은 피부를 팔고 여자들은 시내로 나가 몸을 팔라 명령한다. 『일광유년』 역시 작가의 이전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신체를 상품화하는 방식<sup>13)</sup>으로 생명을 연장하려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그가 내린 명령은 강제력을 가진 채 전달되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를 ‘훼손’한다. 삶을 연장하기 위해 몸을 희생해야 하는 역설적 상황은 이들이 처한 가혹한 운명의 굴레를 드러내는 한편,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력이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수명 연장은 역대 촌장들의 숙원이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도는 여러 번 지속되었다. 앞선 촌장은 수로를 건설하고자 했고, 그 이전 촌장 란바이수이는 흙을 갈아엎어 새로운 전답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 윗대 촌장인 쓰마샤오샤오는 유채기름을 먹으면 오래 살 수 있다는 소문에 따라 모든 땅에 유채를 심었다가 메뚜기떼의 습격으로 일순간 마을은 초토화되었다. 역대 촌장들의 경험치에 더해 쓰마란은 가장 강력한 무기로 개인의 ‘신체’를 통해 공사비용을 충당하며 수로 건설에 매진한다. 마을 사람들은 쓰마란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피부를 팔고 몸을 판다. 여기에 협박과 공포를 조장하는 발언까지 더해진다.

12) 『일광유년』, 191쪽.

13) 엔렌커 소설 속에서 가난한 농촌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몸을 훼손하거나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밖에 없다. 『덩씨 마을의 꿈』에서는 피를 팔았고, 『작렬지』에서는 남자들은 도둑질하고 여자는 성매매를 했다. 마찬가지로 『레닌의 키스』 속 장애인들은 장애를 가진 자신의 몸을 전시함으로써 돈을 벌었다. 이 모든 상황은 당사자 스스로의 결정이 아닌 국가 혹은 국가의 위임을 받은 관리들의 명령과 총용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작가의 비판적 시선을 엿볼 수 있다.

모두들 마흔 넘게 살고 싶은 것 같으니 내일부터 곧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집마다 비축해둔 것들을 전부 가지고 나오도록 하세요. 돈이 있는 집은 돈을 갖고 나오고 돈이 없는 집은 나무나 돼지, 양곡을 팔도록 하세요. 집에 환자가 있든 없든 관이 있는 사람은 전부 장에 내다 팔아야 합니다. 마을의 규정에 따라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마을에서 누가 죽든 간에 일률적으로 거적으로 말아 매장하도록 하고 관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절약한 돈으로 집무시장에 가서 팽이와 망치, 폭약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중략) 어느 집이든 돈이 있으면서 내놓지 않거나 집에 있는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내가 촌장의 직위를 걸고 그 집을 불태워버리고 말겠습니다.(중략) 공사 현장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건달들을 시켜 그의 아내를 겁탈하게 할 겁니다.(중략) 공사 현장에 찾아와 발일을 재촉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반드시 그 집 아이를 잡아 죽일 겁니다.<sup>14)</sup>

예정된 실패 속에서 얻은 경험은 수명 연장이라는 목적을 더욱 강력한 목표로 만들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동원되는 비윤리적 수단을 정당화한다.<sup>15)</sup> 이때 발생하는 윤리의 붕괴는 단순한 타락으로 보기 어려운, 생존본능이 모든 규범을 뛰어넘는 순간을 포착하면서 극한 상황 속 도덕적 선택의 난망함을 기록한다.

본능을 위해 윤리를 포기하는 이와 같은 선택은 인간 존재를 입체적으로 그려낸다. 윤리를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이고 본능은 억압되어야 한다는 대립

14) 『일광유년』, 348-349쪽.

15) 역대 촌장들의 역사는 현재 촌장 쓰마란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 특히 쓰마샤오샤오가 감행했던 일들은 쓰마란이 보여준 행태의 전조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유채를 심었던 마을에 메뚜기떼의 습격으로 먹을 것이 없어지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겼다. 모두가 죽을 수는 없다는 판단에 쓰마샤오샤오는 가장 먼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산에 버리라고 말한다. 위험은 어리고 취약한 이들에게 가장 먼저 발생하고, 그들은 가장 빠른 희생자가 된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들의 인육을 팔라 명령했고, 급기야 시신을 땅에 묻지 말고 들판에 버려두라 말한다. 촌장은 시신을 까마귀의 먹이로 삼고 살이 오른 그 까마귀를 잡아먹어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이런 일을 벌이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에 따라 사람들은 그의 말을 그대로 따른다. 이들에게 굶주림은 자식을 버린 죄책감이나 시신 훼손에 대한 두려움을 압도하는 감각이다.

적 사고방식이 극한 상황에서는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산성촌 사람들 앞에는 신체를 상품화하지 않으면 수로 공사가 실패하여 모두 마흔 살이 되기 전에 죽거나, 피부와 몸을 팔아 수로를 만들어 마흔 살이 넘어 살 수 있는 기대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있다. 인간의 윤리를 지키면 모두 마흔 살을 넘기지 못하고, 윤리를 저버리면 인간성이 상실된다. 두 선택 모두 비극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윤리적 역설이 발생한다.

이 지점에서 『일광유년』이 중국 농촌의 슬픔과 비극을 비판하는 대신, 그 속에 숨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의 힘에 천착하는 작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라는 주장<sup>16)</sup>에 힘이 실린다. 곧 역설적 상황 속에서 등장인물들이 벌이는 도덕적으로 모호하고 때때로 잔혹한 이야기는 살아남으려는 생명의 결단으로 읽는 것이다. 이에 기대면 산성촌 사람들의 비윤리적 행위는 오히려 ‘생명에의 의지’를 극대화하려는 처절한 시도로 해석 가능하다. 곧 작품 속 윤리의 붕괴는 단순한 타락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닌 복잡다단함을 부각시키는 한편 극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생명력의 또 다른 이름이 된다.

‘생명에의 의지’는 단순한 권력욕이나 지배욕으로 환원되지 않는 살아 있는 존재가 자신의 힘을 발산하려는 의지<sup>17)</sup>이다. 『일광유년』의 산성촌 사람들이 보여주는 처절한 생존 투쟁은 단순히 죽음을 피하려는 소극적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힘을 증명하고 운명을 극복하며 존재의 한계를 확장하려는 적극적 의지의 발현이다. 마흔 살을 넘기지 못한다는 운명이 그들의 힘을 제

16) 梁鴻, 「“鄉土中國”象征詩學的轉換與超越——重讀『日光流年』」, 『南方文壇』, 2007년 5월. 그는 『일광유년』이 지닌 고전의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마흔 살을 넘기지 못하는 운명에 맞서 싸우는 이들은 삶 자체의 끈질긴 의지를 보여주는 한편 이들이 벌이는 이야기는 살아남으려는 생명의 결단을 드러낸다고 말한다. 이는 중국 농촌의 슬픔과 비극을 비판하는 대신, 그 속에 숨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의 힘에 천착하는 작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지점이라 강조한다.

17) “오직 생명이 있는 곳, 그곳에 의지가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생명에 대한 의지가 아니라 힘에의 의지라는 것을 가르치노라! 생명체에 있어서 많은 것이 생명 그 자체보다 더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한 평가를 통해 말하는 것은 힘에의 의지다!”, 프레드리히 니체, 정동호 옮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책세상, 2000, 191쪽.

한하는 조건이라면, 4대에 걸쳐 그들이 벌인 일들은 이 제한을 돌파하려는 힘에의 의지의 구체적 표현이다.

그러나 여기서 니체가 힘에의 의지를 두 가지 방향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능동적 힘과 반동적 힘을 대비시키면서, 전자는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창조하는 힘으로, 후자는 타자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힘이라 말한다. 진정한 힘에의 의지는 전자를 지향하지만, 왜곡된 힘에의 의지는 후자로 전락한다.<sup>18)</sup>

“곧 수로가 개통될 거야. 그러면 우리 아들이 부존장이 될 거라고. 일단 부존장이 되면 나중에 존장이 될 수도 있지. 앞으로 산성촌 사람들이 일흔이나 여든까지 살게 되면 모두들 우리 두씨 집안의 말을 따르게 될 거라고. 당신은 먼저 갔으니 어쩔 수 없지. 남은 날들은 내가 당신 대신 아주 잘 살아줄게.”<sup>19)</sup>

소설은 오래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분투를 다루는 이상으로 존장이 되고 싶어 하는 이들의 이전투구를 다룬다. 마을을 다스리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위와 권력은 그들에게 있다.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 이들이 감행한 일들은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모두가 원하는 공동선으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극복하고 재창조하는 능동적 힘의 발산으로 이해된다. 그

18) “모든 고귀한 도덕이 자신에 대한 의기양양한 긍정에서 자라나오는 반면에, 노예도덕은 애초부터 ‘외부적인 것’, ‘다른 것’,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을 부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이야말로 노예도덕의 창조적 행위이다. 가치를 정립하는 시선을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렇게 시선을 자신에게 향하는 대신에 밖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원한의 속성 중 하나이다. 즉 노예도덕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우선 항상 어떤 적대적인 외부세계가 필요하다. 생리학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이 행동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자극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의 행동은 근본적으로 반작용이다.”(강조-필자) 프리드리히 니체, 박찬국 옮김, 『도덕의 계보』, 책세상, 2022, 59쪽. 니체는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의 본질적 기제를 대비한다. 주인 도덕(능동적 힘)이 자신에 대한 긍정에서 자발적으로 자라는 반면, 노예 도덕(반동적 힘)은 ‘외부적인 것’, ‘다른 것’,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을 부정하는 파괴의 힘(원한)에 종속되어 있음을 명확히 한다.

19) 『일광유년』, 233쪽.

러나 여기에 매개된 권력에 대한 욕망은 타자를 대상화하고 부정하는 왜곡된 힘으로 표출된다. 자기 극복의 능동적 힘은 외부의 간섭이나 조작이 아닌 자각과 확신에 의해 동기화될 수 있다. 역대 촌장들은 자신의 능동적 힘이 마을 사람들에게 투영되어 그들 역시 운명 극복을 위해 모두 주동적으로 나설 것이고, 이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해도 된다고 오관했다. 이 지점에서 작품은 지도자의 능동적 힘이 반동적 힘으로 변질되면서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여파를 추적하는 이야기로 확장된다.

#### 4. 운명애와 비극의 긍정

산성촌에서 4대에 걸쳐 벌어지는 일들은 타자를 파괴하는 힘이 결국 자신을 파괴한다는 상호의존에 놓여있는 인간 관계에 대한 통찰로 이끈다. 촌장들은 처음에는 외부로 향해 힘을 행사한다. 땅에 새로운 작물을 심기도 하고 땅을 개간하기도 했으며 다른 마을의 물을 끌어오는 등 외부에 주어진 환경을 변형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이 시도들이 실패하면서 힘은 점차 내부로 향한다. 사람들은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며 더 넓은 뿔자리를 가지려 싸운다. 또한 자신의 신체를 상품화하고 자식을 버리기까지 한다. 외부에 대한 힘의 행사가 불가능해지자, 힘을 자신으로 정향하여 스스로를 대상화시키는 왜곡된 힘에 의지를 표출한다. 몸을 파는 행위는 곧 자기 존재를 파는 행위로, 산성촌 사람들은 수로 건설이라는 목적을 위해 자신의 존재를 수단화한다. 그러나 수로가 완성되지 않으면, 그들은 목적도 없고 존재도 없는 이중의 상실에 직면한다. 여기서 타자를 파괴하는 행위가 곧 자기를 파괴하는 것과 같아지는 상황이 펼쳐진다. 더 나아가, 이야기는 이러한 자기 파괴가 세대 간의 연쇄로 확장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역대 촌장들의 행위가 파괴를 전제했다면 그것을 반복하는 이후 촌장들은 그들의 후과를 답습하는 결과를 낳는다. 때문에 쓰마란이 마을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자식 세대를 희생시키

는 것과 같다.

작품은 생명 연장이라는 목적의 실현이 파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아이러니를 인간성의 극점에 다다르는 순간들로 형상화한다. 현 존장인 쓰마란의 행위를 따라갔을 때 돌출되는 지점 역시 이 부분이다. 산 사람에게 신체를 상품화하라 했던 그는 죽은 사람의 몫까지 빼앗는다.

“주추이, 가서 명석을 하나 가져다가 장인어른을 말도록 해. 관은 깨끗이 씻어서 거리에 내다 팔아야겠어.”  
그러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  
“누구든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사실을 발설했다가는 입을 찢어버릴 줄 알아. 향 간부들은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사실을 모르고 있어. 우리는 예전처럼 장인어른의 월급을 받아다가 링인거 수로 공사를 위해 폭약과 뇌관을 사야 한다고.”<sup>20)</sup>

죽음을 부정하면서 돈을 챙기는 동시에 죽음을 인정하면서 관을 팔아 공사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아이러니는 산성촌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집약한다. 작품 속 인물들이 벌이는 행위들을 운명에 맞서는 생존본능과 윤리와의 충돌로 상정한다면 이들은 일견 윤리를 저버리고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단명이라는 운명을 극복하고 확장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자신의 생명력을 증명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 과정은 생존을 향한 의지로 해석될 수 있으나, 타자는 물론 자신을 향한 유무형의 폭력과 파괴로 변질된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마을 사람들 모두 오래 살고 싶어할 것이라는 쓰마란의 믿음은 이 상황을 더욱 공고화한다. 그는 마흔 살 넘어 사는 것이 산성촌 사람들 모두의 염원이라는 생각에 한 치의 의심도 하지 않는다. 때문에 피부를 팔고 몸을 팔라는 자신의 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금과옥조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정해진 자신의 운명에 다른 방식으로 대응한다.

20) 『일광유년』, 374쪽.

“바깥세상은 변했더군. 토지도 분배된 지 여러 해가 지났어. 개방이 됐다고. 형님이 토지를 분배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밖에 나가 장사도 하지 못하게 막는데 누가 수로 준설 공사에 참여하려고 하겠어? 사람들이 피부를 팔아서 번 돈을 몰수해서 수로 공사에 쓰는 걸 누가 원하겠어? 누구든 초가집을 부수고 기와집으로 새로 짓고 싶어 해. 처녀들이 시집 갈 때 혼수를 준비하고 총각들이 장가갈 때 빙례를 준비하려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은 물론이고, 늙은이들이 세상을 하직할 때 좋은 관 하나 가졌으면 하고 바라는 것 역시 당연한 일 아니겠어? 장사해서 번 돈이 물처럼 흐르는데 형님은 누가 수로 준설 공사에 참여하러 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야?”<sup>21)</sup>

피부를 팔고 몸을 팔아 번 돈의 9할을 수로 건설에 쓸 비용으로 내라는 쓰마란의 명령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행되지 않는다. 그 돈은 이제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쓰인다. 돈을 벌어 장사를 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안 사람들은 돈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을로 돌아오지도 않는다. 운명 개척은 그들에게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일이고, 욕망을 발견한 그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자신의 돈을 쓰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운명에 저항한다는 이름 아래 타인이 이끄는 삶에 매몰되지 않고, 운명을 인지하되 삶의 다른 내용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쓰마란과 대비되는 생의 의지를 보여준다.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단명이라는 공동의 운명을 공유하고 있지만 다른 내용의 생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은 패턴화된 역대 촌장들의 행태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동일한 것의 반복인 영원회귀 속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 그러나 반복이 차이를 포함하고 있다면,<sup>22)</sup> 더이상 같은 것의 반

21) 『일광유년』, 473-474쪽.

22) “모든 것은 가며, 모든 것은 되돌아온다. 존재의 수레바퀴는 영원히 돈다. 모든 것은 죽는다. 모든 것은 다시 피어난다. 존재의 시간은 영원히 흐른다.(중략) 매 순간 존재는 시작된다. 모든 여기를 중심으로 저기라는 공이 굴러간다. 중심은 어디에나 있다. 영원의 오솔길은 굽어있다.”(프리드리히 니체, 정동호 옮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354-356쪽) 이 문장에서 “매 순간 존재는 시작된다”는 부분에 주목하자면, 영원회귀는 모든 것이 반복되지만 그것은 기계적이고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다시 시작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복이 아니고 매 순간 새로운 선택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쓰마란이 수로를 판 것은 란바이수이의 시도를 반복한 것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사건의 발생이 된다. 쓰마란은 란바이수이와 같은 선택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고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가 결국 수로를 판다는 사실은 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이다. 일견 그의 선택이 과거의 패턴을 따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그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산성촌 사람들이 촌장의 명령에 따르거나 따르지 않는 것 역시 그들 자신의 고유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란바이수이가 토지를 개간하면서 삶의 연장을 꿈꿨다면 쓰마란은 신체를 상품화하고 협박을 동원하면서 수로를 만들려 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방법의 차이이자, 동일한 운명의 제약 아래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계를 돌파하려는 고유한 생의 의지와 충동의 발산이기도 하다. 실패의 반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각자의 고유한 의지에서 비롯된 선택의 결과라면, 그 실패는 수동적 굴복이 아닌 능동적 행위가 된다. 영원회귀 속 차이가 단순한 반복을 넘어 실존적 의미를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영원회귀를 “동일자의 귀환이 아니라 차이 그 자체의 귀환”<sup>23)</sup>이라는 해석에 기댄다면, 반복되고 회귀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의지와 선택에 따른 차이이고, 여기서 허무적이고 반동적인 것은 선택에서 배제되며 긍정적 의지만이 되 돌아온다. 소설이 그려낸 산성촌의 역사 안에는 무의미한 실패의 반복이 아니라 이전 세대와 구별

23) “우리가 ‘영원회귀’란 표현을 동일자의 회귀로 이해할 때는 항상 오해를 낳는다. 되 돌아오는 것은 존재가 아니지만, 되 돌아옴 그 자체는 그것이 자신을 생성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긍정하는 한에서 존재를 구성한다. 되 돌아오는 것은 하나가 아니지만, 되 돌아옴 그 자체는 자신을 차별자로, 다수로 긍정하는 하나이다. 달리 말하자면, 영원회귀 속의 동일성은 되 돌아오는 것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차이는 나는 것을 위해 되 돌아오는 상태이다.” (질 들뢰즈, 이경신 옮김, 『니체와 철학』, 민음사, 2001, 101쪽.) 이 독해에 따르면 영원회귀 속에서 회귀하는 것은 오직 긍정적 의지뿐이며, 반동적이고 허무적인 것은 선택되지 않는다. 산성촌 사람들의 저항이 지속된다는 사실은 반복을 통해 올 수 있는 체념과 무기력이 파괴되고 생을 향한 긍정적 의지임을 보여준다.

되는 의지의 강도와 방향이 새겨져 있다. 때문에 회귀하는 것은 실패라는 결과가 아니라 살아내겠다는 의지와 선택 그 자체가 된다.

운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끝없이 반복되는 자기 파괴의 과정 속에 자신이 놓여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저항할 수 없는 운명을 감각하면서도, 저항하면 할수록 자기 파괴의 강도 또한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산성촌 사람들은 운명에 저항하는 시도를 지속한다. 이는 영원회귀 사상과 만나 삶이 영원히 똑같이 반복된다면 그럼에도 그 삶을 계속 살 것이냐라는 질문과 만난다. 너의 운명을 사랑하는 것이 본성과도 같다<sup>24)</sup>는 니체의 운명애는 단순한 숙명론적 체념이 아니라, 삶의 고통과 모순까지도 포함한 전체를 긍정하는 적극적 태도이다. 피할 수 없는 것을 저주하는 대신, 그것을 삶의 필연적 일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야기 속 인물들은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 반복 속의 지속은 니체적 의미에서 운명애의 한 형태로 읽힌다. 그들은 운명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려는 의지를 멈추지 않았다. 파괴와 창조, 절망과 희망이 뒤엉킨 혼돈 속에서 오히려 삶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의식은 산성촌 사람들의 행태와 맞물린다. 그들은 저항의 실패를 예감하면서도 무언가를 시도한다. 저항의 멈춤은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를 박탈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저항하는, 단명과 저항, 그리고

24) “어떤 인간이 위대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는 운명애다. 즉 어떤 것도 지금과 다른 것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 미래에도, 과거에도, 영원히. 그것은 또한 필연적인 것을 단순히 견디기만 하지 않고 은폐는 더더욱 하지 않으며……그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박찬국 옮김, 『이 사람을 보라』, 아카넷, 2022, 105쪽. 운명애에 대한 선명한 구절은 『즐거운 학문』 276절에도 등장한다. “네 운명을 사랑하라 Amor fati”: 이것이 지금부터 나의 사랑이 될 것이다! 나는 추한 것과 전쟁을 벌이지 않으려다. 나는 비난하지 않으려다. 나를 비난하는 자도 비난하지 않으려다. 눈길을 돌리는 것이 나의 유일한 부정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나는 언젠가 긍정하는 자가 될 것이다!”(안성찬, 홍사헌 옮김, 『즐거운 학문·메시나에서의 전원시』, 255쪽) 곧,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후회나 분노, 두려움과 공포의 부정적 감정들로 인해 삶을 부정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살아가는 것 자체에 궁극적 의미를 두고 받아들이는 태도로서 운명애를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패로 이어지는 운명 전체를 수용하는 태도로 삶을 이어간다.

## 5. 나오는 글

『일광유년』이 취하고 있는 시간의 역순행적 서사 구조는 모든 시도의 결말을 과거로 소급하여 미리 확정 지음으로써, 산성촌 사람들의 단명이라는 운명을 영원회귀의 무거운 굴레로 형상화한다. 쓰마란에서 두옌, 란바이수이, 쓰마샤오샤오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의 역행은 모든 저항이 이미 실패로 예정되어 있다는 운명을 체감케 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 반복은 완전히 동일한 반복이 아니다. 각 세대의 존장은 동일한 운명의 굴레 안에서도 고유한 방식으로 저항을 감행하며, 이 차이야말로 생을 향한 의지의 발현이자 영원회귀가 단순한 기계적 순환이 아닌 실존론적 의미를 획득하는 근거가 된다.

절대적 운명을 극복하려는 역대 존장들의 투쟁은 처음에는 ‘힘에의 의지’를 발현하는 능동적 생명력으로 시작된다. 수로를 파고, 땅을 개간하고, 새로운 작물을 심는 행위는 운명의 제한을 돌파하려는 자기 극복의 의지다. 그러나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이 힘은 점차 왜곡된다. 타자를 희생시키고 신체를 상품화하며 급기야 인육을 매매하는 등의 윤리적 붕괴는 단순한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능동적 힘이 반동적 힘으로 전락하는 필연적 귀결이다. 이때 윤리의 붕괴는 운명에 저항할수록 윤리가 파괴되는 역설을 낳는다는 점에서 인간이 놓이게 되는 복잡다단한 상황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그러나 이야기는 단순한 허무주의나 운명론적 체념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실패가 예정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세대를 거듭하며 끊임없이 생존을 도모하는 산성촌 사람들은 삶의 고통과 모순마저도 필연적 일부로 겨안는 운명애를 실천한다. 그들은 운명을 회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부딪침으로써, 역설적이게도 자신들의 필멸성을 생명에 대한 강렬한 긍정으로 치환한다. 희망도, 성공의 가능성도 없는 이 ‘절망적 긍정’ 속에서 그들의 도덕적 타락과 야만성은

역설적으로 가장 끈질긴 생의 의지를 증명하는 흔적이 된다.

『일광유년』은 농촌의 척박한 현실을 신실주의 속에서 고발해왔던 작가의 창작여정에 동보하지만, 보다 인간 실존의 조건에 관한 근원적 질문을 앞세운다. 운명에 저항할수록 자아는 상실되고, 자신은 물론 타자를 파괴하는 지경에 이른다. 생존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꿈꾸는 것은 도리어 죽음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산성촌 사람들은 운명을 바꾸지 못했지만, 실패를 알면서도 저항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이 반복을 지속하는 것으로 운명애를 실천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 저항 자체를 그들 운명의 일부로 만들어버린다. 인간의 윤리를 따르면 그들은 예정된 죽음을 맞이한다. 반면 윤리를 저버리면 인간의 금도를 넘어서게 된다. 산성촌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든 비극을 피할 수 없다. 이 이중의 비극 앞에서 그들은 반복의 지속을 통해 삶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생의 의지를 피력한다.

여기서 소설이 던지는 질문은 단명이라는 특수한 운명에 관한 것이 아닌, 유한한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인지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리고 그 행동이 낳는 윤리적 귀결을 어떻게 감당하는가에 대한 보편적 물음으로 확장된다. 신실주의라는 외피를 벗겨내면서 길어 올려진 것은 단순한 중국 농촌의 비극이 아니라, 죽음을 알면서도 살아가야 하는 인간 보편의 조건이다. 그리고 니체의 사유는 그 조건을 긍정의 언어로 읽어 낼 가능성을 열어준다.

## 參考文獻

- 질 들뢰즈, 이정신 옮김, 『니체와 철학』, 민음사, 2013
- 엔렌커 지음, 김태성 옮김, 『일광유년』, 자음과모음, 2021
- 진은영, 『니체, 영원회귀와 차이의 철학』, 그린비, 2007
- 프리드리히 니체, 박찬국 옮김, 『도덕의 계보』, 아카넷, 2022
- 프리드리히 니체, 박찬국 옮김, 『이 사람을 보라』, 아카넷, 2022
- 프리드리히 니체 지음, 안성찬, 홍사헌 옮김, 『즐거운 학문·메시나에서의 전원 시』, 책세상, 2005, 314-315쪽.
- 閻連科, 『日光流年』,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2012
- 곽진아, 「니체적 자기극복을 통한 생의 긍정: 에드워드 올비의 Three Tall Women」, 『현대영미드라마』 제32권 제1호, 2019
- 김동규, 「니체 철학에서의 고통과 비극」, 『철학탐구』 제26집, 2009
- 이상엽, 「니체, 허무주의와 운명애」, 『동서철학연구』 제98집, 2020
- 장쉬궈(張碩果), 「문학, 이데올로기, 정치-엔렌커(閻連科) 작품 및 그에 대한 비평 엮보기」, 『공존의 인간학』 제7집, 2022
- 진은영, 『니체에서의 “영원성(永遠性)”의 긍정적 양식』, 『철학연구』 제58집, 2002
- 王一川, 「生死游戏仪式的復原-『日光流年』의 索源體特徵」, 『當代作家评论』, 2001年 第6期,
- 閻連科, 艾翔, 「现实比小说更丰富-閻連科访谈」, 『名作欣赏』, 2015(16)
- 梁鴻, 「“乡土中国”象征诗学的转换與超越-重读『日光流年』」, 『南方文壇』, 2007年 5月

## Abstract

### Fatalism and Ethical Paradoxes in *Streams of Time*

Kim, Bong-yeon

This paper presents a preliminary examination of Yan Lianke's novel *Streams of Time* (日光流年, 2004) through the lens of Friedrich Nietzsche's philosophy. While existing scholarship has predominantly interpreted this work within the grammar of mythorealism (神實主義)—viewing it as a text that represents the violence and suffering of rural China—this study elucidates that the fatalistic condition of premature death transcends a mere allegory of specific historical contexts, emerging instead as a universal existential problem confronting finite human beings.

The reverse chronological narrative structure adopted by the novel can be read as a literary embodiment of the Eternal Recurrence. This narrative, which regresses into the past with a predetermined conclusion, forces a visceral confrontation with the overwhelming weight of destiny, wherein all resistance is preordained to fail. Simultaneously, it acquires existential significance by demonstrating that repetition entails difference rather than mechanical identity. Furthermore, the attitude of the Sanxing Village inhabitants, who persistently resist despite recurrent failures, constitutes a praxis of Amor Fati. This is not a mere fatalistic resignation, but rather the manifestation of an active will that affirms life in its entirety, encompassing both its suffering and contradictions.

**Key words** : Yan Lianke, Streams of Time, Mythorealism, Eternal Recurrence, Ethical Paradox, Amor Fati

투 고 일 : 2026. 4. 10. / 심 사 일 : 2026. 4. 15. ~ 2026. 5. 15. / 게재확정일 : 2026. 5. 20.

